

聖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전서 1:18

發 行 所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1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25) 2633番
集 行 人 吳 九 台
主 筆 田 榮

68.9.20
THE POK EUM SHIN MUN

政治會議를 앞둔 國聯臨時總會의 歸結

韓美協定時韓國意思反影

第七回第三期國聯總會는 韓國休戰後에 개최되는 政治會議의 構成, 場所, 時期等의 結論을 내렸고 二週日間에 걸친 總會는 八月二十八日 閉幕하였다. 今番國聯總會에서 決定된 重要問題는 一, 韓戰戰爭에 參加한 國家만이 政治會議에 參加할 수 있다는 美英等十五國의 共同提案이 通過된것.

一, 朝鮮의 政治會議에 參加는 中共 및 北韓만이 參加를 희망할 경우에 認定한다는것

一, 朝鮮提案인 韓國戰爭에 參加한十六國 및 中立國九國國으로 政治會議를 構成하자 提案이 否決된것

一, 政治會議構成에 대한 提案 및 勸告案을 中共及北韓에 通知하고 國連事務總長이 이것에 관한 報告를 國連加盟國에 通知할것

一, 政治會議개최의 時期와 場所에 대하여는 美國이 國連側을 代表하여 共產側과 교섭하여 決定할수있게 된것

一, 印度의 政治會議參加에 관한 英連邦四國提案은 政治委員會에서 二十七對二十一의

韓國問題最大緊急

韓休戰은 一大轉換期

美國켄터키出身 共和黨上院議員 존·서먼·쿠퍼氏는 위스콘신州, 밀워키에서 開催된 外載在卿軍人會合에서 韓國에서 共產侵略이 阻止된것은 戰後史의 一轉換期라고 요지다. 音과같이 말하였다.

「世界情勢는 一九五〇年六月의 共產軍의 韓國侵略以來 完全히 변화하였다. 休戰교섭에 있어서

는 共產측의 不誠意에 基因하 는 失望에도 불구하고 公산친 략에 반대하는 세력은 全世界에 波及되어 顯著히 強化되며 단결되었다. 第二次大戰以來 우리들은 항상 全韓國의 자유와 獨立을 위하여 노력해왔으나 이 目的이 流血을 보지않고 달성된다면 이것은 우리國家와 同盟國 및 韓國自體에 있어서

社說 印度와 政治會議

대한민국 외무장관 변영택씨는 이번 국련총회석상에서 만일 인도가 이제 개최될 정치회의에 그 一員으로서 참석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여러 출석하기는 거의不可能한 일일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또 인도가 과거에 있어서 공산세력국가로 더부러 애초하고 또 交易하여온 사실을指摘해서 인도는 사실 현재의 투쟁에 어떠한 도덕적문제도 포함하여있다는것을 분명히 파악하지못한다고 말했다. 인도가 이政治會議에 참석하는것은 미국도 반대를 표명하였고 또 지금 형세로 보건대 인도가 이 회의에

참석하는데 필요한 三分之二의 투표를 얻는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한것이 사실이다. 인도가 오늘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투쟁에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않냐는데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가지지 못했다는것은 심히 불행한 일이다. 인도는 지금 까지 어느편에 확실히 가담하지않고 오히려 中立이나 혹은 第三勢力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온것이다. 人權問題, 그리고 眞理와 正義와 같은 根本原理가 관계되는 이러한 경우에있어 그러한 태도를 가질수없다는 사실을 인도의 지도자들은 깨달아야

할것이다. 옳은편에 적극적으로 로 가담하지않는것은 결국 자동적으로 옳지않은편에 참여하는것이 되고 마는것이다. 우리는 몇몇 인도지도자들이 끼쳐준 도덕적 또는 정치적 큰 힘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판디와 타고르」 같은 사람들이 가라친 사랑과 무저항의 교훈은 오늘에 있어서도 온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동경의 대상이 되는것이다. 그런데 여게는 이제 한가지 난관이 있다. 그것은 즉 이러한 순수한 이상주의가 지금 공산주의운동을 취 진시키고 있는 그 무자비 무계도한 정권투쟁자들에게는 야모 영향도 주지못한다는것

이다. 그들은 인도가 이 정치회의에 참석하는것을 바라 고 있는것이다. 그것은 인도가 가지고있는 그 이상주의적 경향을 그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하는데 이용하고자 하기때문이다. 그들은 인도가 이 政治會議석상에서 반드시 中共, 北韓, 또 朝鮮에 有利한 제안을 할것으로 믿는것이다. 그것은 인도야말로 무든 人間性을 신뢰하는것이라고 생각하기때문이다. 非共產主義世界를 언제나 혼란케 하고 또 기만하자라는것이 공산국가들의 정책이니만큼 이번 인도를 이 회의에 참석 시키려고 애쓰는것은 물론 자기네들의 그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것은 의심할 여

隨想 無題錄 秋湖堂人

머리말
나는 이제부터 귀한 紙面을
배서 내 가난한 倉庫, 창고라
기 보라도 남은 주머니에 들
어있는 것이나 보잘것없는 生涯
에서 얻는 것을 부끄러운 대로
독자 여러분에게 내놓아 구경
시키고 후회하게 하는 의욕을
모험을 敢히 하고자 한다. 그
러니까 내 놓아서야 無難하
지 않나? 내 놓아도 없거나 그
가나 뜻이 있거나 없거나 그
것은 독자에게 맡길 따름이다
그 물은 曰원도 지나가 버려
갈이 가물침이 닦쳐와서 산
바람이 불고 飢饉하는 머리가
좀 깨닫지 못하 이런 空想을
생각하지라도 단 것을 讀者諸賢
은 양해하시라.

날세에 대한 말이 났으니
말이지 三十八度 四分가 되고
그 이상 曰 넘어서 사람을
紅線에 집어넣은 것 같고 체면
도 영세도 없이 모두 팔가송
이를 말하며 놓더니 요세의
최선의 길일 것이다.

우리들에게 이 韓國問題는
가장 緊急한 問題이요 이것은
도한 많은 곤란과 위험을 내
포하는 諸問題의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 세계에 있어서 우리
는 우리의 힘과 세력을 적
지가 없을 것이다.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어느
다른 나라보다 정신적으로
뛰어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인도와 마찬가지로 평화와
정의에 대한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만큼 우리는 인도의 그 고
상한 이상을 역시 부정하거
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
직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을
더 많이 지나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이 무엇이라든지
을 잘 안다는 것 뿐이다 그
들은 전쟁을 통해서 얻지 못
한 성과를 이제 음모와 술
책을 통해서 얻어보자는 것이
다 만일 이제 우리가 소련
이나 또 그밖에 다른 공산
국가들로 하여금 인도가 세

日氣는 대체 무슨 突變이오
怪變이고 아직 이렇 적은 안
되었는데
사람의 일도 돌을 것이지만 하
는 결과 땅 위에서 되는 일은 다
구나 알 수가 없다.

도대체 나는 본시 신문물
을 안다는 성미지만 職業關係
로 할 수 없이 신문물을 물려다
보니 뉴욕에 어떤 「劇團」에서
는 韓國政府會議의 序幕으로 即
時 當者의 意圖는 「無義」하
고 일루루루 하고 演說같은
작자들이 左之右之 愚弄한 것
이 있구나 결국 印度가 世界
에 사퇴하고 한편 佛蘭西에서
는 四百萬 이란 精壯한 人員
의 「스트」가 일어나서 二十日
동안이나 계속하다가 요새야
거우 고지 모양이나 하여튼
그 나라는 어찌 自由陣營으로
서 좀 흔들거리는 형세가 각
정인 되는 모양이오 또 한편
「이란」에서도 야단법석이 나
서 법치위헌인 셈이오 그보다
우리나라는 고래사육에 새
우 한마리가 긴 격으로 지금
당하고도 有効하게 사용하여
賢明하고 慎重한 現實的인 判
斷力을 항상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공산주의의 조전에 대한
종국적인 해답은 우리들이 아
세아의 數千萬의 國民에게 美
國은 자유의 友邦이라는 것을

계정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정
신적 세력을 이용해서 그들
의 아세아 침략정책을 도아
주게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까지 韓國전선에서 싸웠다는
것은 의의없는 일이고 말
 것이다.

이제 인도가 장구한 세기
사이에 쌓여 온 그 지혜와
이상주의를 가지고 민주주의
면에서 좀 더 철저하게 나서
지 못한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제라도 인도는 하나님의
귀히 쓰시는 그것이 되어 온
아세아가 과연 참된 자유와
진리와 민주주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그 지도적 역할
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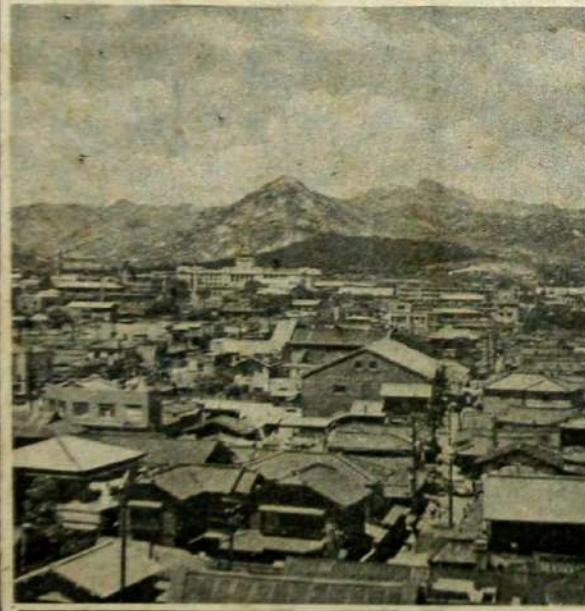
은 양면에서 좀 손을 두르고
鎮定을 하고 있지마는 아직도
씨름거리는 풀이 이제 언제
무슨 바람이 일어날지 알 수 없
는 판이다 너희가 二條를
내면 우리도 二條를 붙들고
마마 대충宣傳이겠지만 저편에
서도 水陸試驗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 防禦
協定을 하면 中共에서도 防禦
協定을 한다는 소문이 돌리고
南滿北에서 그렇 戰事 準備은
부담부담하고 있으니 이제 韓城
의 平和와 世界의 平和는 연
제 물러가는 白雲 白雲
仙人은인가 양말을 누가 아
「아미선하위」가 알라 眞은「眞
眞五五」가 알라 眞은「眞眞」
이 알라 알라가 땅 위에는 없
다 세상은 물리는데로 물러가
는 것이오 歷史는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 갈 따름이다 그는 힘과
돌리는 이는 따로 있는 것이다
何如한 世界에는 한번 誇張하
는부신 轉換이 생겼지만은 분
명하다 時代가 偉人을 만드느
나 偉人이 時代를 만드느냐
하는 것은 좀 목은 수작일지마
아닌데 있다 그리하여 우리
가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遂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 時
期가 平和와 安全의 새로운

는 지금 세계에서든 노상 관
제없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아
모리 科學時代요 民主主義 時
代라고 사람의 관계 인격의
힘은 크다. 사람의 힘, 인격의
힘은 보이지 않는다. 나타난다
무엇 社會의 動亂과 時代의 風
조임이 歷史의 흐름이 그
뒤에는 사람의 힘, 사람의
힘에서 움직여지는 것을
누가 承認하랴.

사람이란 육 人格이란 보통
물건과 같아서 반드시 많이
오래되면 힘이 있고 무슨 일
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있어도 千千萬萬을 움직일 수
있고 千千萬萬 이상의 影響을 일
을 지킬 수도 있는 것이다.
無限한 勢力을 가지고 世界를
變革할 수도 있는 것이다.
中共의 戰術처럼 數만 명이
일을 치르는 줄 알고 모
이고 떠돌기만 하면 일이라는
조로 생각하는 것은 요새 소위
文化가 높다는 美國과 유럽사
람들의 迷信이요 狂信이다 저
들에게 「會」와 宣傳을 배워서
면 무엇이 남으랴

서울의復興

政府遷都에 따라 各機關은
물론 經濟界의 中立도 釜山에
서 서울로 옮겨졌고 釜山에
피난한 前在 서울各學校도 續
續 서울에 부흥중에 있다.



부흥중의 서울

(人事)

○李大偉氏(在日韓國YMCA理事長) 지난八月二十九日來日
○미쓰 맥남(南長老會宣教師) 八月三十一日羽田發 釜山歸任
○미쓰 산달(山斗)(세느란 스코틀學校校長) 同日釜山歸任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말
을 잘한다」 「예배당 예수」라
이런 말이 불신자의 입에 오
르네라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하여서는 적지 않은
모욕이요 또 큰 경계거리다.
○그런 말은 불신자가 교인을
증상하고라고 하는 말도 되고
기독교의 표준이 너머 높은
까닭도 있지마는 사실에 있어
서 우리의 신앙이 주일날에만
한하고 예배당에서만 경건하고
말은 잘하나 실생활이 그렇지
못하는 점이 가끔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신앙은 신앙이요 실생활에
터무나 장사에는 그대로 할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
무리해도 양심을 속이는 것이요
기독교의 존재의 의의도 의심
이 생길 것이 아니라 혹 세상
법을 좀 어찌기로서니 신앙
나 하나님의 뜻에만 위한
없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도 있는지 모르나 세상법을
법하다가 걸려서 화를 당하면
신앙에도 타격이 되고 (말을
여 약한이에게) 거리낌이 되는
것은 어찌하랴.

○이번에 권모의 금말사건 무
를 이어서 모신문에 評狀히
취급된 金某의 金某 같은 것은
우리 신자와 교회에 크게 경
계가 되는 일이다 이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엄게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좀 착실한 사업을 하도록
단단히 정신 차리시라.

總會長趙淇善牧師

카나다 留學

今月中旬出發



조 기 선 목 사

하여「총정교회」를 설립할뿐 아니라 단독으로 자립전도자양 성기관「삼일신학교」를 설립할 예정이고 삼일교회 다시 일본에서 건넌후서 곧 대한독립교회목사로 임명되어 지금까지 시무하고 작년 10월에 총회장에 피임되었다.

작년부터 캐나다留學이 결정되고 학교 표정도 되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아직 떠나지 못하고있는 재일대한기독교총회장이오 대한독립교회 목사조기선씨는 금번에 여권이 나와서 9월 20일경에 출발하기로 되어 지금 준비에 분망중이라고 한다.

監神尹教授瑞西留學

(聖範教授)



씨는 본지 전남 순천출생으로 일찍이 일본에 건너와서 일본대학건축학과를 마치고 신앙심과 진도일에 불타는 마음으로「아카시」에있는 성서학사에 들어가서 유망한 진도자에 택초(澤村) 목사 분하에서 그의 총애를 받으며 수업을 받은 다음에 해방직전에 귀국하여 서울에서 개척전도에 노력

칼빈의信仰과生涯 (1)

全景淵 博士

칼빈의首弟子요 最初의 칼빈傳著者데오올·베자(Heide Begg)는 다음과 같은 뜻의 말을 했다 한사람의 傳記를 쓴다 眞理를 保全하려는 熱意에서만 始作되는것이다 그러나 그 傳記의 主人公과를 온전히 一致시키는것은 잘못이다. 그도 역시 그의 時代에있어서 眞理를 밝히려고 最善의 努力을 다한 한 不完全한 人間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칼빈傳을 쓰는데는 眞理를 守護하는것과 全히 다른것이라고反對한다면 나는 대답하기를 그렇다! 사랑과 眞理와는 다

칼빈의意圖한바와 그의 가르침바를 알지못하고 그를 空然히 어떤 不可侵의 聖人으로 외시하려는 偶像崇拜에 빠지는것이다 그의 偉大性은 逆說的인것이며서 실로 그의 時代的인 性格에 있는것이다 그가 時代의 制限과 誤진을 질머지고 失敗하며 成功한 그의 時代안에서의 忠實한 苦闘에서 우리는 그의 存在와 思想을 찾아야한다 서투른 文體로나마 그의 生涯와 그의 信仰을 배자가 目標한바와같이「優아하게 보다 眞實하게 쓰기위하여 素朴한 近世形式」으로 옮기려한다. (著者)

루터가 突然 열루르테에 있는 아우구스틴修道院에 돌을 依託하여 그의 貴한 天來의 召命을 遂行키위하여 生의 轉

基督教世界救濟會其後活動

아펜셀라 博士 談



아펜셀라 博士와 主筆

것은 세상이다 잘 아는 사실이다. 박사는 부인을 동반하고 지난 8월초순에 휴양지로 홍콩에 가서 약 삼주일동안 지내다가 지난 31일 오후 한시에 CAT편으로 다시 한국으로 귀환하는 길에「하네다」에서 전중하는 기자에게 유창한 우리말로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통일이 못된것은 유감이나 우선 무서운 전쟁이 정지된것이 다행입니다 하네다의 설리로 압니다 당분간은 평화가로 계속될 줄 압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구제회에서 영구한 구제의 목적으로 대전에 착수한 직조공장은 지금은 건물을 짓는중인데 거의 되어가니까

형하고 금주리고있는 東國民衆들이 無價廉급식량을 얻기위하여 柏林에 여행하려는것을 금지하는 公산정부의 명령은 이로 말할수없는 압제수단이다 東獨逸도성은 서슴치않고「柏林」地區內의 각驛에 停行하는 個人用차표 日曜日制引回遊차표 및 團體券의發行을 즉시中止하라고 명령하였으며 그다음날에 이르러서는 西柏林에있는 德國國庫券을 얻기위한 여행東獨逸를 吳도 구로테오루씨는 7월 29日演說에서 만일 이 자신의 동결이 해제된다면 이것을 所屬古領地의 국민을 위하여 식량을 구입하겠다고

各地方會

開催預告

의 家庭은 社會的地位와 富를 兼有해있었다고 한다 칼빈의私書信(一五六十年十一月一日付 布林거에게 부친장)에 依하면 그의 叔父(Jacob)는 舊기民族에 屬하여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佛語의 音이 經典流로 쓰면 Gans가 되므로 이에 따른것이다. (칼빈의生涯) (註) / Dr. 著 Ve ve Calvin 이관 칼빈傳이 Calvin Gans 全集第二十一卷에 修錄되어있는데 이 傳記初版은 칼빈의 死後出版된 最終 聖書 註解書인 여호수아記 註解에 附하여 1565년에 出版된것이다. 칼빈 大升受 (De Calvin's) 칼빈지에서 貴族 몬모르(Montmor)와 同姓리(Denis) 家門의 子弟들과 함께 修學

講壇

孝의觀念과基督教

名古屋教會 牧師 金 德 成

어떤이는 우리 기독교는 불효(不孝)의 종교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효도에 대한 교훈을 알지 못한 까닭이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 (신 5:16) 그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창 22:1-17) 자녀를 너의 부모를 주안에 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있는 첫째 명이니 이는 잘되고 파에서 장수하라(창 6:1-13) 등으로 부모를 공경하여야 할 것을 우리 기독교처럼 역설한 종교는 없다.

그러나 원시인들 즉 야만인들에게는 이와같은 효도에 정신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호적박사(胡適博士)의 저서중에 은거론(隱居論)을 읽어보면 원시인들에게 있어서는 노인을 무용시한 것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자살하거나 내버려둘을 당하거나 하였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또한 투쟁이 격렬하던 태고(太古) 시대에 있어서는

安島山과基督教

田榮澤

집이 가난하면 어린 아들을 생각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충신을 생각한다는 말이 있거니와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듯 어렵고 앞길이 아득한 이때에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지성이 있고 선견의명(先見之明)이 있는 도산 안선생을 생각함이 간절하다.

해방후 서울서 열린 도산 심주기 기념식 석상에서 이승만박사가 「지금 선생이 살아계셨다면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행복이 많았을 것인가!」 하고 간곡한

내버리는 악습을 폐지하였다 한다.

구약성경중에도 왕국분열당시 솔로몬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경험있는 노인의 의견을 좇지 아니하고 힘기왕성한 청년의 말을 좇은 관례로 왕국분열이라는 일대불상사를 낸 사실을 기록하였다(列王上 12:1-14) 또한 음기에는 청년 엘리후를 통하여 이와같은 말씀을 하였다 「나는 년소하고 당신들은 년로함으로 살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넘기시오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라침것이라 하였으니(욥 12:1-2) 장수(五十六) 들은 노인이 때때로 관례(慣例)나 전통적 신조를 고집하여 잘못하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위험도 있다 어떤 시대에 있어서는 혁신은 등은 자유이며 활기있는 청년의 정신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그러나 벌써 얻은 것에 기초를 두지 아니하고 항상 새로 시작되는 운동은 진보가 아니고 오직 변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고로 인류가 문명진보의 원동력이 되는 노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 사실은 인류의 일대비약(飛躍)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생애와 정신을 들어 보자 아오「그대들은 나라를 위하여 하로에 다만 심분식이라고도 생 각을 하라」한 청년들에게 대한 훈계는 그의 중심과 소원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그는 사실 나라를 위하여 단장을 자지 못하고 앉아서 밝힌 적이 많았고 날마다 날마다 아침부터 밤까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살았다. 한국은 그의 아내요 자식이요 애인이었다. 선생은 그 부인에게 못 한 법을 선물하지 못하고 그 자녀에게 공학 한권을 사주지 못하였으나 나라를 위하여는 있는 정력을 다 바치고 그의 생명을 바쳤다 그가 미주에 있는 그 동지에게는 편지를 하되 같은 곳에 있는 그 가족에게는

의 결과 즉 노인을 죽이고 혹은 산과 들에 내버리는 풍습을 지속하는 것은 자기도 얼마후에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자각을 가지게 되고 노인을 존중하는 일이 마침내는 자기를 존중하게 되는 것임을 아는데 이르게 되었다.

지나의 효자전(孝子傳)에 기록된 것을 보면 원곡(原穀)의 사적이 있는데 원곡은 나의 남방초(萑)나라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초의 할아버지를 산중에 내버려둘려고 수레를 만들어 할아버지를 태워 원곡으로 하여금 산중에 실어 보냈다 원곡은 할아버지를 아

實話

惡黨에서 金禮根

「이 자식아 거지같은 자식 네가 동경이나 가보았니 동경도 못가본 자식이 천당은 무슨 천당이나 천당 가보았니」 일제시대에 평안북도 경철부 향사부장으로 호령이었고 「열라 대왕」만난 것처럼 무섭다고 하는 김예근(金禮根)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불를리면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일본사람이다 된 것처럼 무죄한 양민 특히 신자를 불

소식이 없었다. 선생은 정치가 이면서도 돈에 청렴하고 이성애 깨끗하였다. 중국에 계실때에 로령에 있는 동지들이 모 운동자금에 쓰라고 보낸 돈 몇만원을 받았으나 그 사업을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 전액을 돌려 보낸 일이라든지 또 상해에 계실 때에 어떤 여성이 선생을 연모하는 나마에 그의 침방에 들어 갔을때에 아버지같은 위엄과 자비로 물리친 것 같은 사실은 성인이 아니면 못할 놀라운 숭고한 인격자의 행동이다. 그의 사생활이 이렇듯 깨끗하고 가혹한 것은 웅대한 종교가도 족히 따를수 없는 바이오 훌륭한 성자의 자취를 갖추었다고 할수있다 그러기에 나는

아버지께 명령대로 산중에 내려 판넌이 밭상하게 된 것이다. 「구
 버리고 그 수레를 가지고 집 세 노관」의 저서중에 소쿠라테
 에 올라왔다. 그때의 아버지가 스 회상록(回想錄)에 있어 소
 쿠라테스는 저의장자(長子) 람부로
 수레는 도로 가지고 왔고
 나고 책망하니 원곡은 이것은
 아버지께 이따올에 놓으면 다
 시 여기에 태워 산에 내려버
 리기 위하여 가지고왔다고 하니
 그 아버지는 놀라서 노인을
 다시 집에 모시고 도라와 효
 행을 힘썼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도 공산당의 사람들은 제
 아버비를 죽인것이 역사라하니
 과연 인륜을 벗어난 자들이오
 문화의 역행이오 야만의 행
 이다 또한 인류의 도덕심의
 발달에 따라 보은(報恩)의
 이니라」하였다. (계속)

였다. 일본경찰이 기독교인을
 미워하는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일본경찰에서 형사노릇을 二
 十五年동안이나 해먹은 그는
 국내에서나 만주지경으로 다니
 면서 우리 애국자와 교역자들
 을 수없이 죽였다. 그는 체구
 가 거이 씨름군 비슷하게 크
 고 기운이 장대한데 귀다란
 는이 □□□□한것이 맞서기만
 해도 무서워서 떨리는 형편이
 었다.

그가 한번은 만주지경에 독
 림강을 소위 토벌하러 갔다가
 오는 길에 어슬어슬한 저녁인
 데 국경 어떤 곳 갈밭에 무
 었이 허연것이 보니까 그는

서서 가고말았다. 이런 사람이 그후에 화개하고 예수 믿고 열렬한 전도자가 되었는데 일평생에 이때의 일은 잊을수가 없는 가시가 되어 양심을 찌르고 있었다고 한다.

X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는 무죄한 사람을 잡아서 때리고 잡아가두고 가둔 사람을 석방해준다고 돈을 먹어서 큰 집을 짓고 토지를 사고 한것으로 형사를 그만 둔다음에도 명복대천에서 손잡는 부자노릇을 하였다. 그래서 날마다 술을 먹고 까마다 고랑진미로 먹었다.

참다 못해 사랑에서 주인 김씨
가 김이 무력무력 나는 헌밥
을 한입씩 집어넣고 있는것을
웁서도 먹고싶은듯이 들여다
보고 있었다. 그리자 그 아
이 머리위에는 금시에 벼락불
이 내렸다.

「이 자식아 어른 밥먹는데
버릇없이 들여다 보아」
하고 찬 구두짝으로 갑진것이
다 어림것이 하도 놀래고 혼
나서 붉은 피를 흘리면서「아
이고 아이고」울면서 따라가든
모양을 바라본 그는 아모리
악독한 악마이었지만 남은 밥
이 꼭 구멍에 넣어가지 아니했
다 신문을 들여다 보아도 그

聖徒
根先生實記

잡아다가는 「부정선인」이니 「비
국민」이니 「미국놈의 앞잡」이
니 하면서 갖은 박해를 하였
다. 목사나 천도사가 강단에서
만일에 「모세가 애급의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 족속을 해방시
켜가지고 홍해를 건너가는 이
야기만 해도 당장 이른날 잡
아다가 막 때리고 구두발로
차면서 독립운동한다는 죄명을
씌워서 유치장에 집어넣기가
보통이었다. 사실 처음에 한등
안은 가슴에 불이 타는 애국
한 이야기와 모세가 六十만
대중을 거느리고 나오다가 뒤
에 애급군사는 몰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서 진퇴양난의
위경에 모세가 지팡이로 물을
갈라서 이스라엘백성은 무사히
건너가고 애급의 대군은 다
홍해물속에 잠사지낸 이야기가
(속으로 일본과 우리나라를
두고) 멋지고도 열렬한 설교를
했든지이다. 그리고 기미년 전
후에 독립운동이 거이 교회들
와 교인이 중심이 되어서 했

「에이 우루사이!」하고 돌아
크 파실을 범한것이랍다.
「자네가 바쁜 길이요 동정이
특별이 어리 속에는 동정이
있으나 바쁜 길이요 동정이
없다.」
「에이 우루사이!」하고 돌아
크 파실을 범한것이랍다.
「자네가 바쁜 길이요 동정이
특별이 어리 속에는 동정이
있으나 바쁜 길이요 동정이
없다.」



(金正惠氏)

서 다만 약과대학에 입학하여
현재 여러가지 약조건 밑에서
학업에 전심하는중 성격이 매
우 우람하다.

아리학 연구실에서 실험에
전심하고 있는 정혜씨는 말을
이여 소감을 말한다.

저는 약학을 해서 돈을 벌
어 내 생활이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세균학을 더
연구해가지고 파피된 조국에
돌아가서 특별히 위생시설과

선생에게 「여성을 전도에 바쳐 주심이 어땠겠습니까」 하고 말
씀드리니 일이었다. 선생은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하고 결
양하셨건마는 우리종교인이라는
사람중에 그만큼 생활이 깨끗
한 자가 몇이나 되느냐.

선생은 가장 진심을 사랑하
셨다. 그리고 적은 일에 진심
하게 할 것을 가르치셨다. 「독
립전쟁의 총사령관이 된 와상
훈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의 사랑하는 벼꽃을 피고 제
가 꺾었다고 바른 말을 한
다」

「리 와상훈이 먼저 되어라」
고 그의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권고하시는 음성이 지금도 귀
에 정쟁하다.

선생님은 젊어서 예수를 믿
시고 열심으로 전도하셨다.

그는 조국을 사랑하여 일생을
바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행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
었다. 사실 선생님의 시대와
정세에 있어서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쳐 일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일은 아니었다 고
할수있다.

선생님은 성경을 극히 사랑
하셨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한 말씀과
「너이는 문져 그 나라와 의
를 구하라」 한 주의 보훈을
그는 심히 사랑하고 이 말씀
으로 가끔 교훈하셨다.

우리의 독립은 독립할만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조선민족이
영원이 번영하는 민족이 될라
면 문져 민족성을 고쳐야 되겠
다 나라일을 하려고하기전에

문저 착실한 「사탐」이 되어라
완전한 인격을 길러라하는 그
의 인격주의의 사상은 오로지
성경에서 받은 것이오 예수님의
교훈에서 받은 감화다 선생님
서 「우리 이천만 동포가 모두
그 손에 신약전서를 한권씩
가지는 날에야 우리에게 희망
이있다」고 단언하신것은 「사람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없다」라 하신 주
의 교훈에 영향을 받은것이다
선생이 생존하셔서 금일의 부
패와 타락을 보신다면 더 격
절히 이것을 주장하실것이다。
아아! 이제 선생같은 깨끗한
인격자를 사모함이 간절하다。

(下關教會傳道師 金泰烈氏令嬢
大阪藥科大學在學)
「저는 학교를 졸업하면 본국
으로 돌아가서 전제인 구호사
업이나 위생기관에서 봉사하러
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혜씨는 이화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의과대학 약학부에서
재학중에 六二 五사범을 당하
여 평북 회천(龍川) 출생이요
동대 토목과(東大 土木科) 출
신으로 해방후 조국건설사업에
많은 공헌을 하는 남편 왕성
흡(王成滄) 군은 사범중에 북
한 피뢰군에게 납치당해가고
그 뒤에 어린것(영희후) 영신
후)들을 데리고 많은 고생을
하다가 재작년에 그 부친 김
태열씨를 따라 일본에 건너와

보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사범후 조국을 위해서 또 내 남편을 남치해간 공산작군에 대하여 복수하는 길인줄 압니다. 물론 어린것이 물이 있어서 좀 어렵겠지만 하나날께서 길러주실줄 압니다.

남편이오? 남편은 죽은 셈 잡고 단념을 합니다. 기술후 가지면 저온자도 살수야 있지 오

아직도 어린학생 같은 씨는 약간 수줍은듯이 이렇게 말을 하고 비장한 결심을 보이는 표정을 하는것이 딱으나 가상스러워 보였다. 들은즉 그는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가지고있다고 하니 다방면의 재질을 갖춘 우리 여성계의 장차 유망한 일군이다.



『날뛰는 악마』(5)

『어디 갔을까 잡혀갔는가』
『태호는 어디 갔는가』하는
것이 명애에게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벌써 사흘밤째
소식이 없으니 평화시대에
적정이 될 터인데 이런 어지럽
고 험한 세월에 왜 적정이
아니 되랴 『어디 있다가 잡혀들
어가서 고생을 하는가』 자기말
로는 자기는 무슨 정당 단체
에도 관계한 일이 없고 큰 재
산을 가지고 호강하고 잘 살
아서 노동자를 착취한 일도
없고 그대도 꽤 직공들을 위
해서 또 누구든지 어려운 일
을 당한다면 힘껏 도와주노라
고 했으니 일없다고 장담을
하듯 했고 사실 자기네가 누
구 인심을 잃은 일은 없으니 누
구 고쳐줄 사람은 없었지만
그대도 봉수 말을 들으면 군
부의 일을 하고 대사관측의 후
원을 많이 받아왔으니 그것을
하는 날이면 아무래도 무사할
수는 없다.

명애는 이런 적정이 되었지
마는 그보다도 명애의 마음을
바늘로 찌르는듯이 피롭게 하
는 것은 그 속이 단단치 못하
고 그 마음 좋은 사람이 어
는 여성에게 끌려다니는 것이냐
아닌가 하는 것이요 그런중에도
의심스러운 것은 송혜련의 일
이었다.

명애는 벌써 태호의 심정을
잘 알고 그 성격도 알았다.
그는 결코 자기 아내되는 명
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오 명
애의 신앙과 그 양반답고 여
자답고 순진한 값을 잘 아는
것과 또 저를 사랑하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또 한편 성
질이 호랑하여 날기를 좋아하
고 여자들에게 반하고 끌리기
를 잘하는 약점이 있고 게다가
가 인물이 잘나서 반하는 여
자들이 많기 때문에 성화를 해
왔던 터이었다. 그뿐 아니라
태호는 사업을 좋아하고 그리

고 그 사업을 위하여는 거의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여 아무런
사람의 협력이나 도움이라도
쉽게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보았
다 자기는 경제나 장사방면에
는 아무것도 모르는 『골 예수
군』이라 하면서도 가끔 금하
면 자기한테도 들어와서 의논
을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마
련해 오라고 야단을 한 일이
가끔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태호는 누집에 가서 누워있는
지 혹은 누구하고 연락을 해가
지고 『인민군』과 협력을 해서
무슨 일을 하누라고 다니는 것
이나 아닌가 하는 염려도 하
게 되었다.

명애는 종로서에서 어떤 중
늙은이 보아서 책임자 호의로
석방되어 집에 나와서 집을
지키고있는 태호를 반가이 만
나고 혼자동침에도 가서 아버
지는 남쪽으로 나가고 없으나
어머니와 동생들도 반가이 만
났고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자
태호가 무척 애썼다는 것을 자
기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에
게 들려서 잘 알았고 물론
태호 자신에게서도 들었다.

그러면 명애 자신은 여자정
보대원으로 잘못 알아서 잡혀
가서 고생을 했지만 앞으로는
일없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다
만 태호만을 비교적 안전한 곳
에 피신을 하도록 하려고 하
였다 아무래도 젊은 남자가
집에있는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봉수와 태호와 세사
람이 의논하고 결국 동대문밖
안암동에 있는 봉수네 일가
아주머니되는 늙은이가 계집애
하나 데리고 혼자 사는 집에
가서 지내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시장에서 장사
해먹는 여자처럼 체리고 가끔
다니면서 연락해주고 음식도
갖다주고 그리고 자기는 집안
식구를 돌보고 봉수와같이 공
장까지라도 돌보았다.
그러면 태호는 너무 감감해

서 그랬던지 병이나서 몇날
누게 되었다 그래서 명애는 떠
나지 않고 자면서 간호를 하
다가 좀 나아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야 집에가서 친정에도 가
보고 그러저럭 일을 보다가
한 이틀 못다가 사흘만에 갔

더니 주인 아주머니 말이 지
난 밤에 나가서 그저 안들어
왔다고 한다 늦도록 앉아있다
가 그 이튿날 저녁에 또 가
보아도 안들어왔다.

公告

聖恩中 各教會 發展會 참가
기원하오며 本會第九回定期總會
開催에 關하여 公告하나이다.

一名 在日大韓基督教會
第九回定期總會

時日 一九五三年十月十三日
부터 十四일까지
(開會十三日午前十時)

場所 名古屋教會堂 四ノ八
名古屋市中村區椿町

(東海道線名古屋驛南出
口前)

各教會 獻議案件은 所屬
地方會를 通過하여提出할것
(地方會를 通하지않은 案件
은 接受하지않습니다.)

各地方會에서는 選定한 總
代名簿와 獻議案等을 九月
末일까지 總會書記局에 提
出할것

(書記局住所京都市有京區西院
矢野町二〇 京都教會內)
總金員捐金(洗禮敎人一人當
壹百圓式)을 未納한 敎會
는 總代가 持參하도록할것

日本에 居신 우리同胞로서
基督敎傳道를 願하시는분 或
은 過去 信仰生活를 하신
분으로 傳道所나 敎會를 設
立하고지 하신분 既成敎會로
서 本總會에 加入하고지 하
시는분은 今番 總會에 연락
하여주시면 極力協助하겠습니다
(以上)
東京都千代田區神田區樂町二
ノ四
在日大韓基督敎會總會
各教會 貴中

(設計施工)

裝置所各種張寶事
化設備工各ル販工
淨式プイン具氣
水イ洗インイ具氣
汚ボ水パボタ器電
生房道込動及器築
衛暖水打手呂陶建
道湯水打力呂諸木
水給下掘動風衛土

有田管工業株式會社

京都市右京區西院西大路通松原東北角
電話 壬生(84)0186番
取締役社長 兪凡 潘
本籍 慶南南海郡南海面北邊洞